

사이버 상에서의 개인권익의 침해와 구제방안

한 진 만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사이버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인쇄매체와 전파매체로 양분되어 각각의 매체가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가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접근 가능한 누구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 생각, 그리고 사상을 순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획득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interactive) 장치로 이용되어 왔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에서는 누구나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향유할 수가 있다(이재진, 2000).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사이버스페이스(사이버공간)는 쌍방향성, 공간적 비제약성, 접근 및 전파의 용이성, 탈통제성, 익명성 등에 기반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표현, 무제한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이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정상규, 언론중재, 2005년 봄호).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낙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퇴색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범죄형태를 초래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와 인격권(reputational right)

보호와의 갈등이다(이재진, 2000).

즉, 사이버공간은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저작권침해, 포르노그래피 등과 같은 인간들이 다른 의사소통 공간에서 갖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익명성과 규제기술의 한계 등은 이들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정상규, 언론중재, 2005년 봄호).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더 이상 가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현실(reality)과 가상(virtual reality)의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사이버공간은 실제의 공간이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은 더 이상 가상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 공간에서의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이재진, 2000).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인 사이버 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 중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내용과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이버 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사이버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의 유형 중에서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 저작권, 사생활의 비밀, 초상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한다. 법인에게도 명예가 인정되는데,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킨다.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혐오 또는 경멸을 받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김재형, 2004).

인터넷의 영향력 확장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나 표현이 오프라인 언론기관을